

교내 수상 기록이 대입에 미반영되면 교내대회에 나갈 필요가 없나요?

고1 딸아이가 교내 수학 경시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어요. 수상 실적은 대입 미반영 항목이라던데, 앞으로 교내대회는 더 나갈 필요가 없나요?

탐구·발표대회 참가의미 있어

학생부는 대입 평가 자료이기도 합니다. 대학으로 보내는 대입 전형용 학생부가 따로 있죠. 여기엔 학생부 원본에 기재된 교내 수상 기록, 희망 진로 등이 빠집니다.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어디에도 ‘대회’라는 단어는 쓸 수 없어요.

한편 교내대회가 갖는 의미는 대회 성격에 따라 달라요. 서울 강동고 류승백 교사는 “지필 시험과 다를 바 없는,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수학 경시대회나 과학 경시대회는 최근 들어 학교마다 눈에 띄게 감소하는 추세다. 반면, 자신의 진로 역량뿐 아니라

학문적 호기심을 교과·동아리 활동과 연계해 심화할 수 있는 교내대회는 의미가 있다. 학생들에게도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”고 설명합니다.

예를 들어 시사 토론 동아리 활동 중 국가유산 반환 문제에 관심이 생긴 A고 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읽은 책을 기반으로 쓴 독후 활동 보고서를 평가해서 시상하는 ‘서평대회’에 참가했다면, 대회명과 수상 여부는 반영되지 않아요. 하지만 대회 참여 과정에서 읽은 제국주의와 약탈 국가유산 관련 도서명과 독후 활동 과정을 관련 과목 세특이나 창체의 탐구 활동에 활용하는 등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요.